

# 도선사 휘감은 ‘상서로운 푸른 방광’

음력 초하루인 9월 26일 새벽 5시경 서울 도봉산 자락에 자리잡은 대웅전 안에서 1시간동안 푸른빛의 방광(放光)이 나왔다.

도선사 주지인 혜자 스님과 신도 150여명은 “대웅전에서 예불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아미타부처님의 가슴부위에서 푸른 빛의 알 수 없는 광채가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한 뒤 1시간여 동안 아미타 부처님의 법의(法衣), 신중상의 비파, 사천왕(四天王)의 보검, 관세음 보살의 보관, 지장보살의 보주(寶珠) 등에서 푸른빛이 뚜렷이 반짝거리며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는 박정희 전대통령 부부와 정주영 전 공천 현대회장 부자의 위패가 있는 호국을 위한 참회도량인 만큼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안위에 대한 염려가 표현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무성하다.

도선사 신도들은 일부 학자들이 ‘외부의 빛에 의해 반사된 현상일수도 있다’는 추측에 대해 법당안의 조명에 의한 것이라면 매일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편 도선사에는 지난해 이맘때에도 석불전에서 방광이 나왔었다.

## 원만한 남북관계·한민족 안녕기원

### 10일~1월17일 국태민안 100일 기도

도선사는 10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100일기도에 들어간다.

도선사 100일기도는 특히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남북통일과 한민족의 안녕을 기원할 예정이다.

정주영 체육관 개관식 참가차 6일 방북한 도

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6.25 전쟁 당시 사라진 북한 정방산 성불사에 전달할 풍경을 주문 제작 중”이라며 “10월말 성불사 풍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사가 주문 제작한 풍경에는 ‘남북평화통일’ ‘정주영 정몽헌 회장 극락왕생’ 등의 문구가 새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사는 풍경과 함께 북한동포들에게 전달할 설탕, 풍기름 등 생필품을 모으고 있다. 문의 02) 993-3161-3

## 9월26일(음력 초하루) 새벽5시부터 1시간 신도들 “처음 있는일” 부처님공덕 찬탄

도선사 촬영한 15분 분량의 비디오에는 방광이 나타나 신도들은 감탄을 자아냈다.

매일 도선사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있는 신도들도 이러한 현상을 보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있다.

도선사는 이날 탁발승 동상 제막식을 앞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 부처님의 이채로운 기적이라고 믿고 있다. 신도들은 포대화상 제막식을 앞두고 일어난 상서로운 일로 부처님과 보살, 모든 신장들이 호국참회관을기도도량에 미륵부처님의 후신인 포대화상 조성을 축하하기 위해 광명의 빛을 수놓은 것이 아니겠냐고 불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장보살 보주에 반짝이는 푸른빛.



◇9월26일 새벽 5시경 도선사 대웅전내 아미타 부처님의 가슴부위에서 갑자기 방광이 시작되면서 1시간동안 안 법당 곳곳에서 이어졌다.

## “국민들에게 희망의 빛 됐으면”

### ‘방광’ 장면 비디오 촬영 혜자 주지스님

“푸른빛은 생동감을 줍니다. 도선사 방광이 앞으로 국가에 상서롭고 즐거운 일을 암시하는 빛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광의 이적 장면을 직접 비디오로 촬영한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은 “처음 보는 빛이었기에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신기한 현상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이적을 보인 부처님 광명의 빛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가 풀리고 태풍 매미로 인해 실의에 빠진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미륵보살의 후신인 포대화상의 위신력도 강조했다. 스님은 9월 26일 포대화상



제막식 행사용으로 8m 비디오 카메라를 준비하였고 새벽예불 도중 방광 모습을 보고 카메라로 직접 촬영.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많은 불자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상서로운 빛으로 광명을 놓으신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절 집안에서는 경사스러운 일이나 불자들의 서원이 간절할 때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이적을 보이신다”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온몸에서 방광을 하시거나 미간 백호로 무량한 광명을 놓아서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었으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 놓은 곳에서는 종종 방광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 아미타불 법의·관세음보살 보관·지장보살 보주에 신비의 빛



◇방광의 모습이 뚜렷한 아미타 부처님 가슴부위 확대모습.



◇신중상의 비파에도 푸른빛이 역력하다.